

# 화순군 '화순탄광 아카이빙 구축' 착수

### 구축사업 용역 착수 보고회

### 폐광 앞둔 화순광업소 역사 기록

### 근로자 지원·대체산업 육성도 나서

화순군이 폐광을 앞둔 국내 1호 탄광 석탄공사 화순광업소의 역사 기록 사업을 본격화한다. 화순군 지난달 28일 '화순탄광 아카이빙 구축사업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화순탄광 아카이빙 구축사업'은 화순탄광의 변천 과정을 기록해 탄광지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추진하는 용역이다. 화순군은 2023년 말까지 화순탄광의 역사적 사

실을 정리한 메모리북, 탄광노동자와 주민을 밀착 취재한 다큐멘터리 영상, 사진집, 홍보물 제작·전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민을 대상으로 공모전도 열어 탄광노동자들이 실제 사용했던 물품과 그에 얽힌 이야기도 수집하고 향후 석탄박물관 전시 등 문화관광 연계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폐광을 앞둔 화순광업소의 역사적 기록물을 보존하여 후대에 전달하고 문화관광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화순광업소는 우리나라 1호 탄광으로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최초 광구 등록 시점은 1905년, 일본미쓰이기업이 1934년 7월 채광을 시작해 해방 이후 상공부 직할로 운영되다 1950년 한국전

쟁 당시 창립된 대한석탄공사 소속이 됐다. 1950~1980년대까지 1000~2000명의 광부들이 매년 석탄은 화순 경제 발전은 물론 국가 산업 발전의 초석이 됐다. 2021년 생산량은 7만5200t, 누적 생산량은 무려 2653만2000t에 이른다. 추정 매장량은 1031만~1760만, 2020년 생산 기준으로는 약 190년 생산이 가능하다고 석탄공사는 보고 있다. 생산되는 무연탄은 현재 전량 연탄제조에 사용된다. 석탄공사 화순광업소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석탄 감산 방침을 담은 제6차 석탄산업 장기계획에 따라 오는 2023년 말 폐광이 결정됐다. 화순광업소는 내년 폐광을 앞두고 근로자 지원과 대체산업 육성 등 대책 마련을 서두르는 중이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 강진 병영면 지사협 독거노인 콩나물 재배 지원

### 20가구 콩·콩나물시루 전달

강진군 병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허진영·김규현)는 최근 독거노인 20가구를 방문하여 콩나물시루와 콩나물 콩을 전달했다. <사진> 이번 사업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실내에서만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콩나물을 기르며 정서적 회복과 안정감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추진했다.

김규현 민간위원장은 "매주 전화로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콩나물 재배 상태도 확인하며 어르신들이 쓸쓸함을 달래고 정서적 육체적으로 위안을 얻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병영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사랑더하기 캠페인'으로 병영면 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 윤병태 나주시장, 국가균형위 방문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협력 요청

### 우동기 위원장·기획위원장 면담

### 전력반도체 실증센터 유치 건의

나주시가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사활을 걸었다. 나주시는 최근 윤병태 시장이 정부서울청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우동기)를 방문, 나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중대 현안사업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이날 우동기 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 전략 수립을 위한 국가균형위의 구성안과 추진 계획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 국가균형위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현안인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직원 수 200~400여명의 중규모 공공기관 360여개 이전을 골자로 내년 말부터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주시는 강영구 부시장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 TF팀'을 구성해 혁신도시로 1차 이전한 16개 공공기관과 연관성이 높거나 지역 비교우위 분야 시너지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기관·부속시설



윤병태(왼쪽) 나주시장이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장을 만나 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면담을 진행했다.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관내 폐교, 용도별 유휴부지 현황 데이터화를 통해 이전 부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세계 혜택, 이주 지원, 교육·문화·교통 정주여건 개선, 인센티브 제공 등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유

치 전략을 구체화시킬 방침이다. 우 위원장에 이어 윤 시장은 이정현 국가균형위 전략기획위원장,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만나 고효을 전력반도체 실증센터,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영산강 저류지 통합하천 사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윤상현 국회의원과 만난 자리에서는 영산강 생태관광을 활용한 휴식·체험·레저활동을 연계,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치수·이수·진수 사업을 아우르는 영산강 나주지구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 사업 정책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국가 기초연구 기반 확충 및 첨단 레이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이 나주에 유치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공공기관 2차 이전과 더불어 차세대 고효을 전력반도체 실증센터 및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를 통해 과학기술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나주를 세계적인 첨단과학도시로 육성해가겠다"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노안면 동산마을 태양광 발전 기반 전기차 충전소 개소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나주시, 노안면에 태양광 전기차 충전소 개소

### 실버 전동·농업용 차 무료 충전

태양광 발전을 활용한 전기차충전소가 나주시 최초로 노안면에 구축됐다. 나주시는 지난달 30일 노안면 동산마을회관에서 '친환경 태양광 전기차 충전소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전기차 충전소는 농촌지역 친환경 발전원인 태양광 기반의 에너지 자립형 전기차 충전 시스템으로 설계·구축됐다. 채광이 좋은 낮 시간대는 태양광 발전으로 생성된 전기 에너지를 충전에 사용하고 잔여 전기는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통해 야간 시간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원리다. 충전소 설치에 전라남도정보문화진흥원의 'SOS랩 운영 및 SW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진흥원 산하 전남SOS랩 시민연구단의 도심 외곽지역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제안을 통해 이뤄졌다.

이에 지역 ICT분야 전문기업인 아이오티플러스(주)는 작년 10월부터 제품개발, 현장적용, 주민실증을 거쳐 충전소를 최종 설치·완료했다. 충전소는 태양광 전기를 활용한 이동형 실버 전동 전기차 12기, 농업용 전기차 2기 충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유료 충전 시설인 일반 전기차 중속 1기, 완속 1기도 갖춰져 있다. 일반 전기차 뿐만 아니라 농촌 사회 실버 전동차, 농업용 전기차 보급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충전 인프라가 열악했던 주민들이 실생활에 매우 유용한 에너지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게 됐다. 전체 수단도 원가 대비 10%할인된 금액으로 충전할 수 있는 나주량상품권 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 주민들의 비용 절감과 지역화폐 이용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 장성군,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구축 '순항'

### 기관 협업·고시 등 건립 속도

### 내년 착공 2024년 하반기 준공

장성군 삼계면 상도리에 들어설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구축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장성군에 따르면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는 기후변화에 대비해 아열대작물 재배를 확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실증과 연구, 기술개발 등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다. 종합연구동, 육묘온실, 자원보존온실, 저장선별창고 등으로 구성되며, 농촌진흥청이 사업비 350억 원 전액 국비로 장성 삼계면에 건립한다.

지난 9~10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연구시설)이 전라남도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된 데 이어 지형도면 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열람이 차례대로 고시됐다. 이어서 토지 및 물건 조사, 감정평가 등을 위한 한국부동산원 출입이 고시되는 등 센터 구축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 실시계획인가 결정과 토지보상 절차까지 마무리되면 2023년 상반기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계기관과의 유연한 협업도 센터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이지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을 비롯한 실무진이 장성군을 방문해 센터 건립에 관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신속한 사업 추

진을 결의했다. 장성군 관계자는 "군과 지역민이 한마음으로 센터 유치를 염원한 만큼, 남은 절차들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2024년 하반기 준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구축에 발맞춘 장성군의 아열대작물 재배 활성화 전략도 주목된다. 군은 최근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주관 '2023년 맞춤형 미래전략 소득작목 육성시범' 공모에서 신소득 원예작물 '레몬' 육성사업이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일본 등 인접국가 수출 수요가 높고 수익이 기대된다. 도비 포함 4억 8000만원을 확보한 장성군은 레몬 재배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비용 절감형 레몬 재배 내재형 하우스 모델'을 개발할 방침이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